

전통문화연구회 한시 특강

조선 후기 漢詩 이야기 (1)

강사: 金玲竹(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1. 초부(樵夫) 정봉(鄭鳳)

*呂萬永 혹은 呂春永의 家奴였다고 한다. 여씨 집안은 조선 후기 문벌가문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가 그들의 세거지였다. 여춘영의 아들 여동근과 여동식은 만년에 다산 정약용과도 교분을 맺었다. 여춘영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詩人으로 활약함. 참봉으로 陰職을 제수 받았으나 끝내 관직에 진출하지는 않았다. 정초부는 이 집안 소유의 종이였으며, 그가 모셨던 주인(가장 친밀한 주인)은 여춘영이었다고 한다. 1789년 정초부는 7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여춘영은 그에 대한 挽詩 12수를 남겼다.

樵夫鄭鳳¹⁾, 楊根呂承旨萬永²⁾家奴也. 幼爲主, 逐日負樵, 夜則侍寢, 傍聽讀書聲, 輒能暗記. 主異之, 令與子弟讀書, 業驟進. 善於科詩, 主家子弟多賴其力. 客有呼韻使賦白鷺, 卽應口對曰:

鑑①湖秋②水碧於藍,
白鳥分明見兩三.
搖櫓③一聲飛去盡,
夕陽山色滿長潭④.³⁾

1) 정봉(鄭鳳): 『風謠續選』 권5에 ‘정초부(鄭樵夫)’라는 이름으로 시가 두 편 실려 있고, 원주에서 “樵夫居楊根之月溪峽, 不知何許人, 不自道其名字, 常以小船販柴, 往來江湖間, 人號樵夫.”라 하고 있다.

2) 여만영(呂萬永: 1730~?):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경뢰(景賴). 영조 47년(1771) 정시문과에 급제. 『실록』에 정조 11년(1787) 사간의 신분으로 상소를 올린 것이 보인다.

聞者莫不稱奇.

- ① 鑑湖: 『風謠續選』에는 東湖로 되어 있다.
- ② 秋水: 『風謠續選』에는 春水으로 되어 있다.
- ③ 搖櫓: 『風謠續選』에는 欸乃로 되어 있다.
- ④ 長潭: 『風謠續選』에는 空潭으로 되어 있다.

姜浚欽, 『三溟詩話』

cf) 여춘영의 挽詩.

哭樵夫葬 歸路有吟

黃墟亦樵否,
霜葉雨空汀.
三韓多氏族,
來世托寧馨.

cf) 趙秀三 『紀異』에 실린 鄭樵夫 이야기.

樵夫楊根人也, 自少能詩, 詩多可觀. 如曰

翰墨餘生老採樵,
滿肩秋色動蕭蕭.
東風吹送長安路,
曉踏青門第二橋.

東湖春水碧於藍,

3) 『風謠續選』 권5, 30b~31a에 「東湖」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시에서 감호(鑑湖)는 동호의 별칭으로 쓴 듯하다.

白鳥分明見兩三。
柔櫓一聲飛去盡，
夕陽山色滿空潭。

如此者甚多，而恨不傳其全集也。

2. 房妓 이야기

祖宗朝，以事大爲重，赴京之使，謂之萬里之行也，往來一路之接候，極其款洽。使及書狀，專以游宴爲事，必載箕城之妓而行，至于龍灣館，越江之時，設宴於船上，將別，取小石，截其腰，而各藏其半於囊中，及其還到，江上與所持相合爲信。通事等之各出中原綵緞以呈，謂之江上纏頭。正德辛巳，唐詔使時，李相荇爲遠接使，李公希輔蘇公世讓鄭公士龍爲從事官，到龍灣，各聯句，成一絕云：

來來去去揚無情，
快馬長程紅袖輕，
辛苦鴨江江上石，
前行纔了又今行。

其後分石之事廢，而江上纏頭之廢，亦久矣。況於亂離衰替之日，凡百風流古事，一向索寞，則太平盛事，安得而復見之哉？

李璽，『艮翁疣墨』

cf) 趙秀三 「渡江日，同行者多房妓所惱。書此示之」，『經畹叢集』

龍灣兒女白羊裘，	용만의 기녀가 흰 갖옷을 입고서，
送客爭來鴨水頭。	객 전송하려 압록 강변 다투어 오네.
一曲清波兩行淚，	한 자락 <청파>곡에 두 줄기 눈물，

夕陽寒雨滿孤舟. 석양에 차가운 비 외로운 배 가득하다.

3. 이단전(李奩佃)

*李奩佃: 자는 운기(耘岐), 호는 필재(疋齋)·필한(疋漢)·인재(因齋)·인헌(因軒). 본관은 연안(延安). 『풍요속선(風謠續選)』에 시가 15수 실려 있는데, “奩佃, 字耘岐, 自號疋漢, 又號因軒, 延安人, 賤人也. 才思清警, 見稱當世.”라는 원주가 붙어 있다. 또 『호산외기(壺山外記)』에는 「이단전전(李奩佃傳)」이 실려 있는데 그의 시와 인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李奩佃, 閭巷間人, 自號匹漢. 幼有奇才. 嘗過關廟賦詩曰:

古廟陰森①白日寒,
儼然遺像漢衣冠.
當時未了中原事,
赤免千年不解鞍.

平康相大拜, 奩佃獻詩曰:

昨日蔡兵使,
今朝入鼎司.
御書初降處,
仙樂且隨之.
閭巷皆懸望,
朝廷遂釋疑.
天生將相器,
唯有聖明知.

平康相得此甚喜. 然其他詩皆不及此. 未幾歿.

① 陰森: 『風謠續選』에는 幽深으로 되어 있다.

姜浚欽, 『三溟詩話』

4. 조수삼(趙秀三)

*趙秀三: 본관은 한양(漢陽). 초명은 경유(景濂). 자는 지원(芝園)·자익(子翼), 호는 추재(秋齋)·경원(經畹). 아버지는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 오위도총부부총관(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된 조원문(趙元文)이다. 여항시인 조경렴(趙景濂)의 동생이고, 조선 말기의 화원(畫員)인 조중묵(趙重默)은 그의 손자이다. 承文院胥吏 출신으로, 6번의 燕行 경험이 있다.

趙秀三, 字芝園, 以良家爲院吏, 齒象胥, 屢入中國. 嘗在北京, 有詩曰:

鐵板橋頭映綠波,
宮牆斜出瑞香花①.
大紅氍帽②蠻奴子,
閑洗蒙王白橐駝.

遂以名中國. 後以詩求正於醉松李羲師, 李贈詩:

悲謔草澤狎漁樵,
自得君詩③慰寂寥.
寧有文章比珠玉,
枉煩吹獎送雲霄.
風塵冉冉形容老,
江漢迢迢夢思饒.

柳映洲沙花動峽，
肯縈柔櫓駕春潮。

士大夫多推詡秀三，秀三亦恃才自高，改名慶濼。學醫看病，出入宰相家，驕傲不能守分，見粹於一相公云。惜哉！

- ① 瑞香花: 원문에는 瑞陽花로 되어 있으나, 위쪽에 “瑞陽花陽, 疑香字.”란 두주가 달려 있고, 『秋齋集』에도 瑞香花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 ② 帽: 『秋齋集』에는 笠으로 되어 있다.
- ③ 詩: 『醉松詩稿』에는 書로 되어 있다.

5. 이병옥(李秉玉)

李秉玉貧窮不能自食，妻爲人傭針，秉玉有詩曰：

艱食憐吾拙，
傭衣任婦愁。
裁縫稱手法，
寬窄協人求。
針孔流暉夕，
燈心獨夜秋。
非無箱裡帛，
未敢爲身謀。

自古賦傭衣者始此，故錄之，然其窮亦甚矣。

姜浚欽，『三溟詩話』

전통문화연구회 한시 특강

조선 후기 漢詩 이야기 (2)

강사: 金玲竹(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6. <114> 박제가(朴齊家)

正宗初元, 勅奎章閣, 閣中學士, 極一代之選, 而又選庶流有文名者, 爲檢書官, 朴齊家、李德懋、柳得恭數人, 實爲檢書中翹楚. 然文體輕靡不醇, 風俗幾乎一變. 朴齊家詠促織曰:

梧桐葉大砌流烟,
促織虛堂更可憐.
咫尺銀河愁不渡,
牽牛星畔月如船.

爲時傳誦.

7. 목만중(睦萬中)

餘窩睦知樞萬中, 幼有神童之号, 少登科第仕宦, 常在隱現間. 壽至八十二, 乃終. 故文章極其所至, 百體俱工, 尤長於詩. 方其十二歲, 祖進士公以眼鏡命題令賦, 卽應聲曰:

南國碧玉鏡,
高堂白髮年.
向燈逾歷歷,

出匣更娟娟。
膜外乾坤大，
眉間日月懸。
床頭萬卷在，
老眼爾多權。

始知間世文章，亦必由天品，非獨人工所至也。

8. 이덕무(李德懋)

李德懋，在諸檢書中，最稱博洽，爲人亦清苦。嘗夜寒不能寐，以『論語』一部，積置當風處，『漢書』鱗次覆于衾，其友嘲之曰：“孰謂子貧？『魯論』屏、『漢書』衾，可抵錦帳翠被。”

其「摛文院信筆」曰：

雍容豹直禁林中，
蠟紙晴窗日射紅。
手勘羣書經乙覽，
官啣勝似米南宮。

米芾爲畫學博士故云。

[其二曰：

尺五天光近石渠，
縹囊紺帙映華裾。

小臣贏得容身地，
甘作書堆老蠹魚。]